

# ‘광양매화축제’ 빅데이터 축제 대상 최고인기상



광양매화축제가 2019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에서 최고인기상을 수상하며 전국 대표 축제임을 입증했다. /광양시 제공

### 외지인 이동거리 최장·방문 증가율도 높아 호평 우수성·잠재력 활용 글로벌 명품축제 도약 기대

광양매화축제가 2019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에서 최고인기상을 받았다. 광양시는 8일 “지역 대표축제인 광양매화축제가 ‘2019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에서 ‘최고인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은 고려대 빅데이터융합사업단, 매일경제, 세계축제협회(IFEA) 한국지부, BC카드, K

T, 다음소프트가 공동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상하는 국내 최초 빅데이터 축제 어워즈다. 광양매화축제는 외지 방문객의 이동거리가 가장 길고 외지인 방문 증가율이 현격히 상승한 축제로 축제 발전에 가장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축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도구인 ‘축제 절대평가 시스템’ 데이터에 기초한 1차 정량평가를 통과하고 전문가의 2차 정성평가를 통해 매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은 값진 쾌거다. 세계축제협회(IFEA) 한국지부 회장인 정강환 배재대 관광축제호텔대학원장은 “빅데이터를 축제 평가의 기본 골격으로 삼되 각 축제가 가진 콘텐츠와 마케팅 강점, 조직 전문성, IFEA 평가 지표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평가 분석을 했다”고 말했다. 김명원 광양부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인 빅데이터로부터 광양매화축제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인정받아 기

쁘다”며 “앞으로도 광양매화축제의 정체성을 충분히 살리면서 차별화된 콘텐츠로 고품격 광양매화축제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대상에는 대한민국 1천여 개 축제 중 김제지평선축제 ‘명품브랜드상’, 보령머드축제 ‘지식관리상’ 등 20개 축제만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에서는 곡성세계장미축제 ‘신예인기상’, 정남진장흥물축제 ‘소셜감성상’이 포함됐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의 KT올레스퀘어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 3월 젊고 감성적인 콘텐츠로 축제기간 134만명, 3월 한 달 200만명이 방문한 광양매화축제는 ‘2018 트레블 아이어워드’에서 최우수 봄 축제, 2019년 전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등 글로벌 명품 축제로 도약하고 있다. /광양=허선식기자

## 광양시, 재해예방사업 국비 34억 추가 확보

### 신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등 4개 지구 정비 박차

광양시가 광양읍 신촌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등 4개 지구 정비 사업으로 국비 34억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광양시가 추가 예산을 확보한 재해예방사업은 광양읍 신촌 16억원, 옥룡면 옥소 1억6천만원, 옥곡면 신금 12억원, 진월면 망덕 4억4천만원 등이다. 그동안 4개 지구는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 및 낙석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됐으며 차량 통행 시 불편함이 있어 개선사업이 시급한 곳이었다. 사업 예산이 전액 확보되지 않아 연내에 마무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전남도와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와 전남도로부터 광양 신촌지구 등 3개소에 대해 총사업

비 97억원 중 국비 미확보 34억원이 정부 추경에 전액 확보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광양시는 이달부터 보상 협의와 공사를 본격 추진해 오는 12월 말까지 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낙균 광양시 자연재난팀장은 “재해 예방사업이 조기 마무리되면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및 낙석 등 위험요인이 해소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0개소 529억원(광양 익신 58억원, 광양 오성 46억원, 광양 신촌 40억원, 옥룡 옥소 23억원, 옥곡 백암 30억원, 옥곡 신금 30억원, 진월 외망 99억원, 진월 월길 58억원, 진월 망덕 99억원, 중마 외우 46억원) 규모의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허선식기자



지리산 노고단 야생화 만발 구례군에 소재한 노고단은 1,507m의 높이로 지리산국립공원 안에 있으며 천왕봉(1,915m), 반야봉(1,732m)과 더불어 3대 주봉으로 불리고 있다. 8월 중순 원추리, 동자꽃, 비비추, 패랭이꽃 등 야생화가 만개해 등반객과 관광객들을 맞이하며 아름다운 비경을 연출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 이두성 구례부군수, 현안사업장 점검

지난달 18일 구례군 부군수로 취임한 이두성 부군수가 최근 관내 주요 시설과 현안사업장 48개소를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신임 부군수로서 관내 주요 시설과 현안사업장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추진상황을 세밀하게 점검, 문제점이 예상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군수는 섬진강 힐링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더 쉬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으며 지리산 정원은 색깔있는 로드맵 제시를 주문했다. 또한 지리산역사문화관은 콘텐츠 재배치와 자료에 대한 고증 실시, 구례골프연습장 건립사업은 운동 외의 서비스 항목 확충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많은 사업들이 상호간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사후관리 및 운영관리 측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 부군수는 부서·사업별로 균정 현황을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토론편식으로 해법을 찾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구례=이성구기자

## 광양 진월면 섬진강끝들마을로 오세요

광양시는 9일 “9번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마을로 진월면 ‘섬진강끝들마을(위원장 김선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통해 도시민들이 농산물 수확·가공·시골밥상 체험, 숙박 등 정겨운 시골 속에서 소소한 행복과 정겨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농촌관광마을이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농촌문화체험, 계절별 농산물 수확체험과 농특산물을 이용해 직접 차려 먹는 시골밥상 체험, 쪽염색, 다도, 아트자전거 등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마을 주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바

로 구입할 수 있어 관광객의 요감을 만족시키고 있다. ‘섬진강끝들마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진월중학교를 리모델링해 섬유·세라믹공예 체험, 교육과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다목적실, 각종 즐길거리, 운동기구가 구비된 건강관리센터, 식당시설,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백두대간 자락과 대한민국 청정 1번지 섬진강 하류가 만난 곳에 마을이 자리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시골의 여유로움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섬진강을 따라 굽어치는 국도를 걸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등소박하고 편안한 시골 모습을 즐길 수 있어 많은 관광객에게 사랑받고 있다. /광양=허선식기자

## 구례경찰, 휴가철 성범죄 예방활동

구례경찰서는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피아골 캠핑장 등 10곳에서 성범죄 예방활동을 벌였다. 구례경찰서는 피서지 주변 공중화장실 및 물놀이 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사전 범죄 예방 활동은 본격 휴가철을 맞아 구례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불법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해 집중 현장점검, 불법촬영 경고 스티커 부착 등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임재 구례경찰서장은 “휴가철 성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구례지역 피서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이성구기자

ING

C O M P A N Y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아이앤지컴퍼니

Industrial design Group

CORPORATE IDENTITY ● BRAND IDENTITY ● CHARACTER ● BROCHURE ● CATALOG ● PUBLIC DESIGN ● DESIGN SERVICE BUSINESS ● POWER POINT

tel. 062. 225. 9655

fax. 062. 443. 3212

mobile. 010. 6607. 9655

e-mail. sangwoo0116@hanmail.net